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019호 현대불교 29
2014년 11월 20일 (월 9월 28일) 목요일 / 불기 2558년

간쪽간쪽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한생각에 툭 떨어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부처님들은 “아이구!” 예전에 선지식의 제자들께서 “나는 아주 시끄럽고 공부할 못하겠으니 산으로 토굴을 묻고 올라가야겠습니다.” 하니까 “너 그러면 땅도 단지 말고 웃도 입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하하, 남의 꽃을 보고 좋아하지도 말고 아예 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해라. 아이, 토굴을 짓더라도 남의 나무를 꺾어다가 지어야 하니까 그것도 남의 거를 왜 갖다가 짓고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에 홀연히 깨쳐서 토굴을 묻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이 좋고 이론이 좋고 학식이 좋고 지식이 좋고 이리저리, 그것은 안으로 구겨넣을 건 넣고 바깥으로 내놓을 건 내놓고 할 수 있게, 중용을 할 수 있게끔 50%의 내면 정신세계 그거를 알아야만 결림이 없이 돌아옵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의 50%만이 안다면 보이지 않는 데 50%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만 간다면 그 무슨 재미입니까? 그리고 삶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차를 타면은 내리려고 타고, 내리면 타려고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유통되어서 걸림 없이 우리가 차를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타기만 하고 내림 적에는 아이고, 왜 타는 거는 알았는데 내리는 게, 그렇게 그 안되는 게 많습니까? 이러거든요, 되는 것은 됐는데, 열마중가다 보니까 되는 건 되는데 왜 안되는 게 있습니까 이러거든. 그런 정상이죠.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까요. 안되는 건 되기 위해서 안되는 거니까 그것을 재료로 삼아야지 항상 그것을 업으로 삼고 또는 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항상 병고에서 애고(哀告)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생각이 그러하니까, 그 관습에 의해서, 항상 살아오던 습성, 남한테 들은 습성, 본 습성, 습성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 한생각이면은 그냥 다 벗고 딱딱 털고 일어나건만 아이고, 간쪽간쪽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자기 걸어온 발자취를 왜 붙들고 늘어집니까? 그냥 걸어왔으면 걸어왔을 뿐이지 왜 걸어온 발자취, 걸어온 자체를 쥐고 늘어지느냐 이겁니다. 모든 여러분이 하루살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삼천 년 전을 바로 일 초로 축소할 수도 있고, 일 초를 삼천 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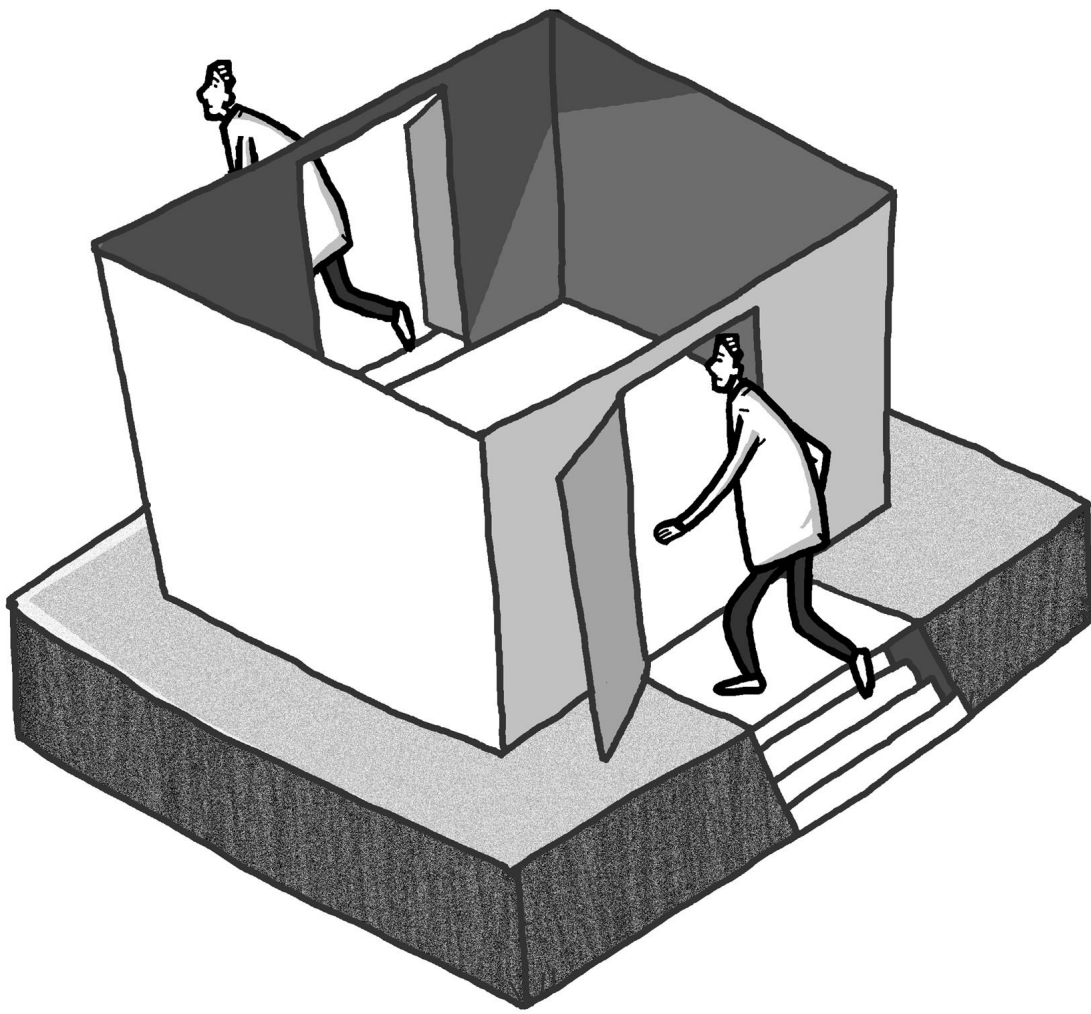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늘일 수도 있다 이소립니다.

이 모두가 그러하니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기 전에 우리 자생중생들을 화(化)하게 해서, 즉 말하자면 보현(普賢)으로 해서 응신(應身)이 돼서 뜻 중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응혜주계(應惠周濟)만 들어야 됩니다. 할 줄을 모르는 말이지마는 현재의 우리가 알고 듣고 감지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수없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지만은 그때 용어로 그때 삶의 방편으로 모두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그 용어를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교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부처님의 말씀을 다 감지하고 감

응이 될 수 있게끔 현실의 용어보다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이 불교의 발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모두 여러분이 불교라면은 목탁을 두들기고 머리 깎은 사람만이 불교를 하는 줄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건은 일체 만중생들의 바로 생명의 근본이 불(佛)입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 생명도 곤충의 생명도 전부 불입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이라고 했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말과 말로 통해서 통신으로 통하고 해서, 통해서 (원을 그려 보시며)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영원한 것이며 바로 끝간 데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의 이

름이라 할지라도 불교 안에 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과학자든지 의학 계통의 의학자든지 공업자든지 정치가든지 막론해 놓고, 이 도리를 완전히 습득한다면 심성천체물리학이 되고 심성의학이 되고, 심성천문학이 되고 심성철학이 되고, 모두가 일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되는 깨달음 하나도 가질 게 없이 되는 깨달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아주 참, 말로는 행할 수 없는, 말로는 수요를 말할 수 없는 이런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평등공법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마음이 연결이 돼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뜻의

그릇을 말하고, 한 찰나에 만났다 한 찰나에 떨어지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한 찰나에 붙으면 바로 부(父)가 되고 한 찰나에 떨어지면 자(子)가 되듯이 한 찰나에 붙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가 들어 안인 까닭에 붙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성철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이 한데 공(空)한 것을 말할 때는 바로 들어 안인 까닭에 법은 법대로 있고 바로 행은 행대로 있다 이런 뜻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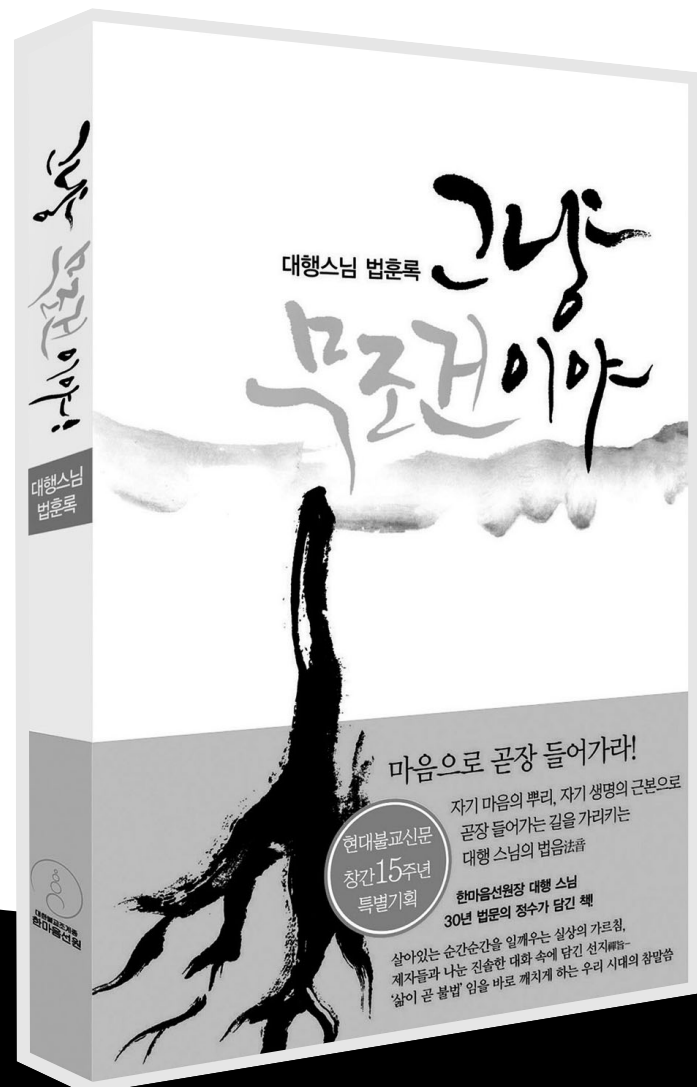
그러니까 찰나에 붙었다 찰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보!” 하고 부르면 “그래!” 그러곤 대답을 하고 한 찰나에 그 마음이, 소켓이 딱 끼어지니까 들어가니게 불이 일어나서 마음을 서로 떨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 소켓이 싹 빠져서, 딱 떨어져서 또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떨어졌다 또 한 사 람하고 딱 붙으면, ‘아버지’ 하고 붙으면 또 아버지 되고 이들이 돼서 딱 붙어서 또 소켓이 싹 들어가서 ‘아버지, 뭐 어찌구...’ “응, 응...” 이러곤 한데 붙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수없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만사가.

그러는 것을 어떻게 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아이고, 잘했다. 내가 설법을 했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모두 깨쳐지고 또는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낮게 해주고 내가 말을 해줘서 여러분이 깨쳤단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듯이 또는 내 몸도 공(空)해서 내가 혼자 한 게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뜻을 아시고 그저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그 오싹통(五神通)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오싹통도 벗어나야 하니까요, 벗어나서 정말 자유스런 자유인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세세생생에 남의 모든 마음을 집어넣어서 굴러내도 손색이 없고 굴려서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 돼야죠. 그것이 바로 구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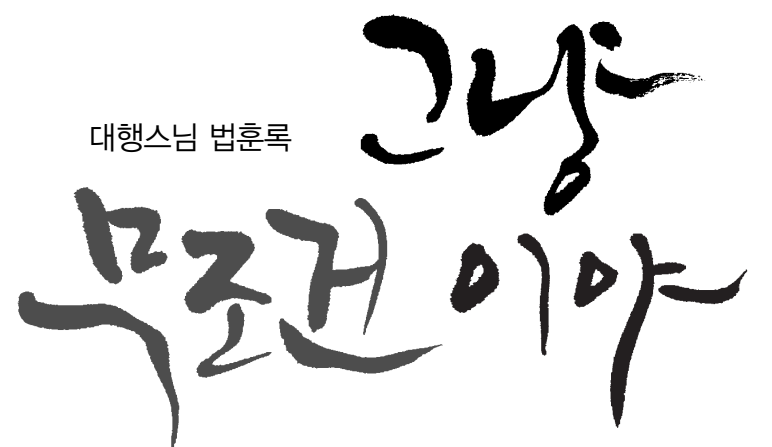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